

### 마음의 렌즈가 포착한 티베트의 영혼 '연화지정(蓮花之井)展' 9월 12일까지

티베트 동쪽 마을 '캅(Khams)', 수행이 곧 삶인 이들의 신앙터전을 사진에 담았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미미술관에서는 9월 12일까지 성남훈 사진전 '연화지정(蓮花之井)展'을 연다. 회색빛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인 현대 문명에 부처님의 경을 담은 신성한 오방색의 '타루초'와 '롱다'가 하얗게 펼쳐진다. 마을 '캅'은 전 세계가 베이징올림픽 열광에 휩싸였던 8월 18일 중국군의 공격으로 140여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한 살상의 현장이다. 학식 높기로 이름난 수행승이 모여드는 마을로 1만여 구도자가 해발 3900고지 구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세상의 흐름에 아랑곳 않고 살아간다.

그들이 기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시대 초반 7000여 비구니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연꽃의 우물을 가꾼다. 때로는 자신의 몸 세배가 넘는 목판을 등에 지고 집을 보수하는데 동참하며 문명의 이기에 초연하다. 사진작가 성남훈이 마음의 렌즈에 초점을 맞춘 풍경들은 세상을 향한 통찰의 메시지를 전한다. (02)418-1315 **가연숙 기자**

### 화폭에 드리운 '불이(不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서

상대적 개념을 여의는 불이(不二)의 법문을 화폭에 표현한다면?

'불이'를 테마로 천의 질감과 오방색을 활용해 캔버스에 비구상적 표현을 펼쳐온 이명숙씨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인전을 연다. 전시장에는 60여 작가의 개인 작품이 동시에 선보이며 아트페어를 통한 경매행사도 펼쳐진다. 2008한국전업미술가 미술제(Korea Professional Art Mall)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이사장 석종수)에서 기획했다. 예술가의 일상상을 통해 다양한 문화 상품을 만나려는 것은 물론 빛을 매체로 한 공동 주제로 한국 현대미술을 재해석한 설치작품도 선보인다. (02)732-9820 **가연숙 기자**

### '한옥의 새로운 이야기'展 9월 2일부터 인사동 한옥서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온 (재)아름지기(이사장 신연균)는 한국동 한옥에서 9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생활속의 아름다움-한옥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展을 개최한다. 2005년 목공예전에 이어 우리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작품을 조명한다. 가구 만드는 목수 이점성과 가구 디자이너 한정현의 작품으로 새로운 한식 공간 연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08년 아름지기 전시는 오늘날 삶의 공간으로 재해석 되는 한옥 생활을 제안한다. (02)733-8375 **가연숙 기자**

# 제1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 이승훈 시인 선정

## '현대불교신문사' '시와세계' 공동 제정, 9월 23일 시상식

현대불교신문사와 시와세계사가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이상시문학상' (상금 2000만원)의 첫 번째 수상자로 이승훈 시인(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이 선정됐다.

이상시문학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근배는 8월 27일 오전 최종 심사를 갖고 이승훈 시인을 수상자로 만장일치 선정했다. 수상작은 <시와세계>을 여름호에 발표한 '모두가 예술이다'.

제1회 이상시문학상의 수상자는 예심과 본심을 통해 선정됐다. 예심위원회(김서은 김미경 김이강 임연태 시인)는 40대에서 60대까지 각 연령대로 왕성한 활동을 보인 시인 14명을 선정해 최근 2년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작품과 발간 시집 등에 수록된 시 가운데 본심의 취지에 부합되는 작품 10편씩을 1차 선별했다. 예심 위원들은 5차례 모여 선별된 작품을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최종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다. 본심에 오른 5명의 시인 작품에 대한 본심에는 이근배 시인, 최동호 시인(고려대 교수), 김재현 시조시인, 장영우 교수(동국대 평론), 돈연 시인 등이 참가했다.

시상식은 이상 시인의 출생일인 9월 23일 오후 7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 심사평

#### 45년간 즐기차게 아방가르드적 시세계 천착

이상시문학상은 그 제정 취지를 "선불교적 감성과 직관과 사유를 지향하는 시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현대시, 시조, 동시, 가사 등 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새로운 개방성, 지적 모험, 치열한 자기회생을 보여주는 시인들을 격려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승훈 시인의 작품이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데 합당하다는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승훈 시인의 시는 본 상의 취지에 부합되고 시인은 최근에는 앞 투병까지 하면서 시작의 열정을 과시하고 있다. 평생 시를 위해 살아온 이승훈 시인이 이 시대 아방가르드 문학의 선두주자로서 한국 문단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점도 높이 산다.

이승훈 시인은 1963년 <현대문학> 등단 이래 45년간 줄곧 아방가르드적 시 세계를 개척하고 연마해 왔다. 한국 시단이 서정적 전통을 주류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 세계를 끝없이 천착해온 것도 본 상의 첫 수상자로 손색없는 이유라 하겠다.

<이근배, 최동호, 김재현, 장영우, 돈연>

### 수상작품

#### 모두가 예술이다

이승훈

용인 공원 식당 창가에 앉아 맥주를 마신다. 앞에는 정민 교수, 옆에는 오세영, 유리창엔 봄날 오후 햇살이 비친다. 탁자엔 두부, 말린 무 쥬임, 콩나물 무침, 멀치 쥬임, 갑자기 가느다란 멀치가 말하네. "생각해봐! 생각해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건지 원! 멀치 안주로 맥주 마실 때 "이형은 목월 선생님 사랑을 그렇게 받았지만 생전에 보답을 못한 것 같아." 종이컵에 하얀 막걸리 따라 마시며 오세영이 말한다. "원래 사랑 받는 아들 따로 있고 효자 아들 따로 있는 거야." 그때 내가 한 말이다. 양말 벗고 햇살에 발을 말리고 싶은 봄날.

"이근이냐? 훈이냐?" 대학 시절 깊은 밤 원효로 목월 선생님 찾아가면 작은 방에 앉드려 원고 쓰시다 말고 "와? 무슨 일이고?" 물으셨지. 난 그저 말없이 선생님 앞에 앉아 있었다. 아마 추위와 불안과 망상에 쫓기고 있었을 거다. 대학 시절 처음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나올 때 "엄마야! 이근 김치 좀 주게. 이근 자취한다." 사모님을 엄마라 부르시고 사모님은 하얀 비닐봉지에 매운 경상도 김치를 담아 주셨다. 오늘밤에도 선생님을 찾아가 꾸벅 인사드리면 "이근이냐? 훈이냐? 와? 무슨 일이고?" 그러실 것만 같다.

<시와세계 2008년 여름호>

### 시인 이승훈은

아호 이강(佈古). 194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이승훈 시인은 춘천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를 나왔다. 시적 재능은 고교 시절, 강원일보 주최 도내 백일장과 '학원문학상'에 당선되며 일찌감치 드러났다. 1963년 <현대문학>에 박목월 선생에 의해 추천원료되어 등단했으며 '현대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한양대에서 석사과정을 연세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이상시 연구'.

등단 45년 동안 줄곧 아방가르드적 시세계를 지켜 온 이승훈 시인은 첫 시집 <사물 A>(1969년) 이후 현재까지 19권의 시집을 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등 25권의 시론집과 5권의 수필집, 2권의 번역서를 냈다.

이승훈 시인은 교수직을 퇴직한 뒤 '속령처럼 끌리는 어떤 힘'에 의해 불교에 귀의했다. "문학적 관심으로 만났던 <금강경>을 이제 구도의 측면에서 읽게 된다"는 시인은 요즘 지인들에게 불교에 귀의한 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긴다. "독실한 불자인 아내가 나의 귀의를 보고 '정신병원 침상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하더라"며 웃어 보이기도 한다.

## 고무신코 만 행화

2008년 9월 5일 - 8일까지 한국불교박물관 출품예정

**특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진회색

**지압솔리퍼**

- 가격: 5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지압·동갈창**

실리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230-280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9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 밴드**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망사단화**

- 가격: 7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 콘**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창

◆ 본사, 전시장: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보은사 석가모니후불탱화



보은사 신중탱화 보은사 칠성탱화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

##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팬파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tak.com

■ 하남공장: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ikutak.com